

콘텐츠 학과 5년새 293개 증가... 취업률은 평균보다 12%p 낮아

2017년 콘텐츠 관련 학과를 보유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은 464교, 1483개 학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12년(384개교 1190개 학과)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콘텐츠 관련 학과는 5년 동안 293개가 늘어 2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향후 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2017 교육기관 및 인력수요 현황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결과에서 같은 시기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의 전체 학과 수는 2012년 2만6233개에서 2017년 2만6093개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전체 학과에서 콘텐츠 관련 학과의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7년 5.7%로 상승했다. 이는 웹툰, 게임, 방송영상, 실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인기가 대학의 학과 개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르별 콘텐츠 관련 학과 수는 방송(507개, 34.2%), 공연(179개, 12.1%), 음악(164개, 11.1%), 콘텐츠솔루션(140개, 9.4%), 광고(127개,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관련 학과는 2017년 0개를 기록했

콘텐츠진흥원 '2017 교육기관 및 인력수요 현황조사'

웹툰·게임·방송영상·실용음악 인기... 학과 비중 상승
높은 노동 강도·저임금 탓 산업인력 구인난 매우 심각
현장 중심·산업맞춤형 교육으로 인력 역량 강화해야

는데, 2015년 학과가 폐지된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도 콘텐츠 관련 학과 졸업자 취업률은 62.1%로 전체 학과 취업률인 67.

5%에 비해 5.4%포인트 낮았다. 특히 프리랜서 취업자를 제외한 콘텐츠 관련 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51.9%로 전체 학과의 프리랜서 제외 취업률(63.9%)

대비 12%p 낮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콘텐츠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프리랜서 취업 비중은 높고 고용안정성은 낮아 불안정한 취업 구조를 보였다.

이밖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교육기관의 콘텐츠 관련 학과 졸업자는 매년 2만 6~8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계에서 느끼는 콘텐츠 산업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콘텐츠산업 부족인력은 2만8477명으로 인력 부족률은 6.0%로 나타났다.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41.1%는 산업계 인력난을 '심각' 수준으로 인지했으며, 구

인난의 원인으로는 높은 노동 강도(45.5%)와 낮은 임금 수준(35.6%)을 꼽았다. 일자리를 찾는 구인 인원에 비해 기업은 적절한 인력을 찾지 못하는 '질적 mismatch'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현장중심·산업맞춤형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형 학습, 인턴·멘토링 등 기업연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전KDN이 개최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전남대 'Energy Rangers'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대상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최근 '2017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SW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됐다.

약 6개월간의 공모기간 총 33개 팀이 참가했으며, 접수된 작품들은 1·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별했다. 이날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이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고, 대상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개념을 가정과 같은 소규모 단위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전남대학교 'Energy Rangers'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조선대학교 '비비빅 데이터팀'과 전남대 '허리케인'팀이 각각 수상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 경진대회를 통해 에너지ICT 전문공기업으로써 모범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ICT 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9606명 배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서석진)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기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결과 총 9606명의 ICT 전문인력이 배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자격별로는 정보통신기술사가 28명, 기사·산업기사·기능사급 국가기술자격자 6003명, 항공무선통신사 등 무선종사자 자격자 3575명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KC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과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사 7개 종목 등 총 23개

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1만6374명의 응시자가 자격검정에 응시하면서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8년에도 KCA는 총 23개 종목을 대상으로 4회의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첫 정기검정(필기)은 2018년 3월 10일에 실시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aT, 농식품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기획단 압' 수료식

<YAFF>

대학생 336명 중 186명 수료

대상 3명 내년 인턴사원 채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목)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26일 농식품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2017 대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 압(YAFF)' 수료식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가 지난 2014년부터 농식품 분야 진

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압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미션활동, 우수식품기업탐방, 국내외 인턴십,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인재와 식품기업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압은 지난 4년간 총 3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540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올해 수료식에서는 올해 팀 단위로 활동한 112팀(336명)의 대학생 중 186명이

수료, 6팀(1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대상팀인 '앗!제주팀'의 이민지, 김영진, 우다송 등 3명의 대학생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과 내년 aT 청년인턴사원으로 정식 채용될 예정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내년에도 압의 변화와 도전은 계속된다"며 "새롭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마을영화 이은경 대표·한빛원자력본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개인부문>

<단체부문>

한국농어촌공사 시상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목)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2017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올 한해 지식과 재능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포상해 농촌재능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수상자는 3개월간 공모기간을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촌재능나눔대상 조직위원회(위원장 한갑수)'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인 '대통령 표창' 개인부문은 마을영화 이은경 대표가 수상했으며, 단체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선정됐다.

이은경 대표는 1999년부터 전국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100여 편이 넘는 마을영화를 제작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 가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와 마을영화 이은경 대표(맨 오른쪽)가 대상을 수상한 뒤 농식품부 김중훈 차관보(오른쪽 두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고 있는 농촌주민들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아 농촌의 소중한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 농촌주민들에게는 삶의 활력소를 전달하는 한편, 도시민에게는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전직원이 재능기부에 나서는 등 기업문화를 만들고 각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재능기부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

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스마트재능뱅크(www.smilebank.kr)와 콜센터(1577-7820)를 통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개인·단체와 농촌마을을 연결해 농촌재능나눔 활성화를 이끌어왔다. 2012년 38개 단체 참여로 시작해 올해 118개 단체 1만8000명이 참여했으며, 수혜마을도 492개에서 900여개로 늘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